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중심지

작가: ADAM CHRISTOPHER



1
보랄러스 회담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BRUSH SAUCE STUDIO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KEITH RILEY CO, AARON OLSON,
ABIGAIL MANUE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TAKAYUKI SHIMBO



Blizzard.com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각을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지만.” 뒤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큰 대가가 따를 것 같아 무섭구려.”

난간에 서서 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던 여군주 제이나 프라우드무어가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 돌아섰다. 상당한 거구인 데다 육중한 방어구까지 착용한 상태임에도, 그는 프라우드무어 요새에서 가장 높은 탑의 비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용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올라왔다.

스칼은 오래된 석조에 기대어 보탈러스를 바라보며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대가 왜 이곳을 아끼는지 잘 알겠소.”

제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탑은 제이나가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동시에, 보탈러스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본인의 위치와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뿌연 바다 안개가 걷히면서 보탈러스는 새벽의 사파이어처럼 빛나고 있었다. 천 개의 지붕. 백 개의 첨탑. 모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산맥부터 강대한 쿨 티란 함대를 보듬은 웅장한 항구까지, 탑에 선 제이나의 시야에 자신의 영역이 들어왔다. 명령만 내리면 저 수십 척의 전함이 단숨에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가로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쉬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지.” 스랄이 말했다.

제이나가 눈을 깜빡이며 상념에서 벗어났다. 스랄의 얼굴에는 달라란이 추락하던 날 보았던 공포가 어느 정도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비단, 스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곳에서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면 보랄러스뿐만 아니라 아제로스 전체를 집어삼킬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쉬웠다.

“쉽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진 않네요.” 제이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기대가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요.”

그 참사가 있었던 날 이후로 열 번 해가 뜨고 졌다. 그날 이후로 제이나는 밤이면 밤마다 빛과 경이의 도시가 카즈 알가르 하늘에서 어린이아이 장난감처럼 뽀뽀 사라지던 순간의 공포를 꿈에서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악몽은 현실이었다. 더불어, 제이나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 또 다른 세계의 분리가. 또 다른 대격변이. 이름 있는 악마가 다가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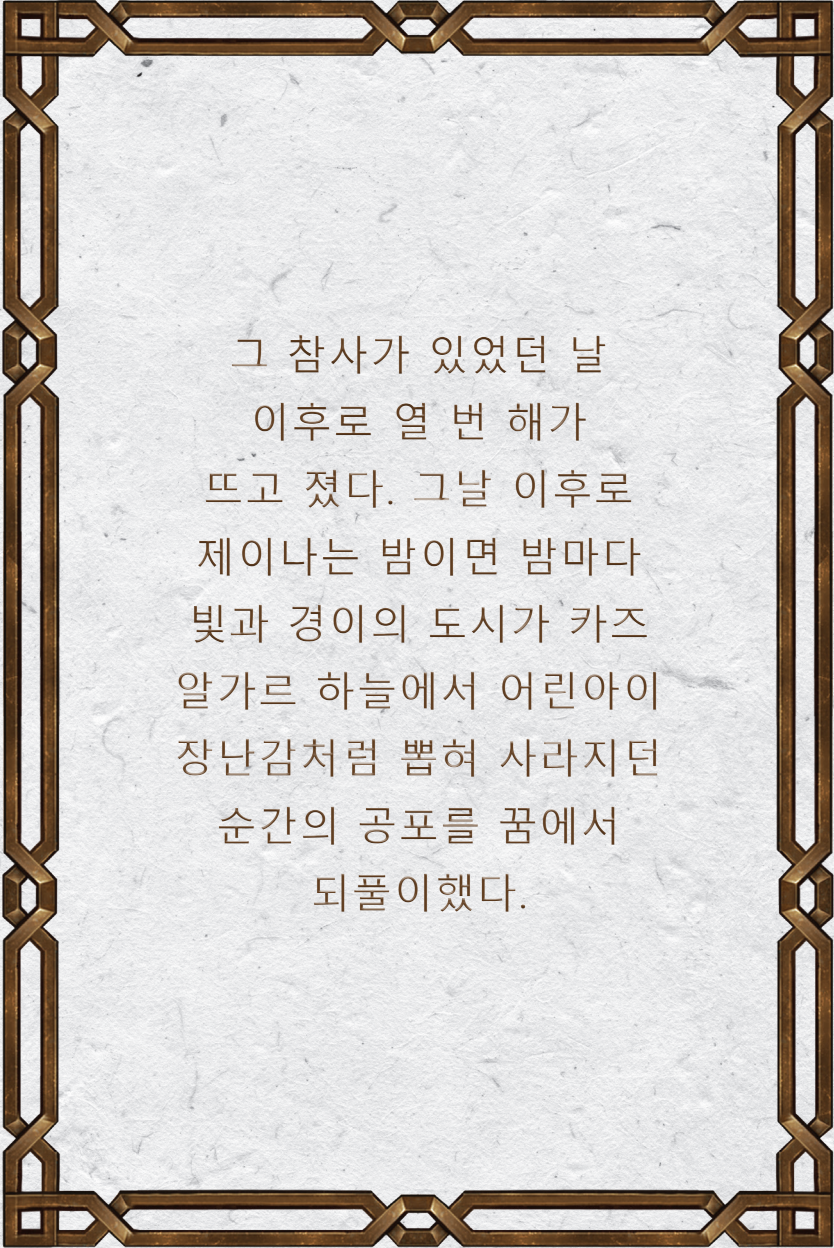
잘아타스.

각자의 수도로 돌아간 이후로 열흘, 제이나와 스랄은 격랑 속 나룻배처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아제로스 전역으로 급사들이 파견되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권위를 담은 서신에는 단 하나의 엄중한 전언이 담겨 있었다. 새롭게 출현한 적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 모든 지도자를 보랄러스로 부르는 내용이었다. 제이나는 지도자들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일부는 왔다. 상당수가 불응했을 뿐.

돌이켜보면 제이나는 ‘광휘의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깨닫지도 못한, 순진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제이나는 순찰 중인 경비병, 부두 노동자들, 계단을 쓰는 여관주인들, 통을 굴리고 수레에 짐을 싣는 시장 상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백성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영과 목소리에 불안해하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얼마나 많은 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환영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을까.

그때 뒤에서 철거덕거리는 쇠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작게 울렁거리는 욕설이 들리더니, 나선형 계단에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이나와 스랄은 탑 정상에 모습을 드러낸 다나스 트롤베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그 참사가 있었던 날
이후로 열 번 해가
뜨고 졌다. 그날 이후로
제이나는 밤이면 밤마다
빛과 경이의 도시가 카즈
알가르 하늘에서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뿔뿔히 사라지던
순간의 공포를 꿈에서
되풀이했다.

붉은색 휘장을 두른 가슴팍이 힘겹게 들썩였다.

“거참. 쿨 티란은 항해 민족치고 계단을 어지간히도 좋아하는구먼.”

제이나는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애써 억눌렀다. 다나스는 제이나의 부름에 누구보다 먼저 응답했다. 다나스는 며칠 전부터 도시에 머무르며 제이나의 회담 준비를 돕고 있었다. 다른 지도자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실망했을지언정 결코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다나스는 든든한 동료이자 훌륭한 자문이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해결책은 찾은 것이오?” 스랄이 물었다.

“사실, 그렇다오.” 다나스가 화답했다. 그가 계단으로 돌아섰다. “갑시다. 할 얘기가 많소.”



제이나는 스랄과 함께 다나스를 따라 프라우드무어 요새 중심부 깊은 곳에 자리한 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때 중얼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돌아오면서 얘기 소리는 예의를 차린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회의장에 모인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토론에 몰두하며, 지정학적 문제를 극복하고 제이나와 스랄이 카즈 알가르로 데려갈 공격 부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들이 회의장 중앙의 거대한 전쟁 탁자에 둘러앉은 가운데, 제이나는 다나스의 말이 사실이기를, 곧 잘아타스를 상대로 싸우러 갈 수 있기를 바랐다.

제이나와 스랄의 부름에 응한 지도자들은 사실 제이나의 생각을 넘어선 의외의 조합이었다. 호드 진영에는 대지 고리회의 일원이자 스랄의 배우자인 아그랄란, 즉 아그라와 타우렌 대부족장 바인 블러드후프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바인 블러드후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로 나이트본의 첫 번째 비전술사인 탈리스라와 체구는 작지만 당당한 볼두나이 불페라의 짐마차 우두머리 쿠로도 있었다.

탁자 반대편 얼라이언스 진영에는 새로운 나이트 엘프의 지도자가 된 산드리스 페더문과 공허 엘프의 마법학자 엄브릭이 나란히 서서 일견 강렬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폴스타트를 대신해 세 망치단 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강직한 인상의 쿠르드란 와일드해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과 갈색이 섞인 가죽 방어구를 착용한 테스 그레이메인은 한 사람의 여왕으로서 참석했다. 그 모습이 당장 전투에 나갈 채비를 마친 것 같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바로 테스의 따뜻한 인사였다. 이 회의의 향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제이나로서는 안도감이 들었다. 몇 시간 전 회의장을 떠날 때만 해도 지도자들이 각자 맡은 책임과 그로 인해 공격 부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계를 논하면서 열띤 언쟁이 벌어졌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었다.

제이나가 탁자로 다가서자 전에는 없던 대형 지도가 활짝 펼쳐져 있었다. 제이나는 이 지역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라시 고원?”

다나스가 입을 우물거리던 찰나, 엄브릭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위험합니다.” 그가 가느다란 푸른 손가락으로 턱을 괴었다. “이렇게..... 불확실해선 안 됩니다.”

“누군들 안 그럴겠소.” 바인이 운을 띄웠다. 타우렌이 커다란 팔을 움직여 팔짱을 끼고 턱을 들어 올리자, 탈리스라는 몸을 숙여 깃털 달린 머리장식을 피해 나왔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과 가진 게 불일치하는 때도 있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산드리스가 탁자 위로 몸을 기울였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이나가 좌중을 둘러보았다.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건가요, 다나스?”

“7군단.” 다나스가 아라시 고원 지도에 그려진 자신의 왕국을 가리켰다. “스트롬가드에는 상당한 수준의 병력이 집결해 있소. 명령만 내리면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스랄이 턱을 문질렀다. “흥미롭군. 이 주둔지의 지휘관은 누구요?”

“내 질녀 마란이오. 내가 외교 업무로 스톰윈드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아이가 스트롬가드의 정무를 대신 보고 있다오. 7군단 예비군 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더군요.” 다나스가 두 손을 벌렸다. “물론 결정은 그 아이에게 달렸지만, 분명히...”

“마그하르와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요.” 아그라가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다.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로 호드는 망치 주둔지를 오크 피난민에게 내주었습니다. 4차 대전쟁 이후 대군주 게야라와 백성들은 갈 곳을 잃었지요. 망치 주둔지를 에워싼 땅은 나그란드 환경과 매우 비슷합니다. 마그하르가 아제로스에서 새 출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아그라는 지도 반대편, 구름지 아래에 자리한 오크 요새를 가리키며 스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만 드레노어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게야라는 물론, 그 백성들의 상처도요. 지금은 대군주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수의 코르크론이 주둔하면서 훈련 중이죠. 스트롬가드에 대한 견제책으로.” 아그라가 엄중한 표정으로 다나스를 바라보았다. “

스트롬가드에서 행동을 취하면, 망치 주둔지에서 반응할 겁니다.”

쿠르드란이 작게 욕설을 내뿜었다. “이 해묵은 갈등은 진즉 해소된 줄 알았건만.” 그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수염을 쓸어내렸다. “고원의 상황은 좋지 않소. 전혀 좋지 않지.”

제이나는 테스와 엄브릭이 눈빛을 주고받고, 탈리스라가 고개를 숙여 키로의 귓속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이나의 시선이 스랄에게로 옮겨 갔다. 전 대족장은 다시 한번 이마를 찌푸린 채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주변 사람이 아닌 지도에 꽂혀 있었다.

다나스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만. 이미 다 한 얘기 아니오.” 그가 한숨을 내쉬곤 천천히 탁자 주위를 돌았다. “우려는 이해하나, 잊은 것 같군. 스트롬가드는 아직 4차 대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마란이 7군단에 지원을 요청한 건 농부들을 포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오. 얼라이언스를 지탱할 병력을 양성하고,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우리 가문이 통치력을 잃지 않도록. 마란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오.” 탁자에 모인 이들이 다시 중얼거렸지만, 다나스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우리의 공격 부대는 바로 여기 있소. 7군단. 그리고.....” 다나스가 아그라 걸을 스치며 고개를 고덕었다. “코르크론 말이오. 아제로스에서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전투병이오.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이 이상 뛰어난 군대는 없을 거요.”

다나스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제이나와 스랄 곁에 섰다. 그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란은 제이나 당신 말을 들을 거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아주 존경하거든. 그 아이에게 서신을 보내리다. 당신이 갈 것이고, 7군단의 출정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나는 게야라를 잘 모르지만 당신은 잘 안다오, 스랄. 호드가 대족장을 철폐했다고 하지만, 코르크론은 당신의 명령을 듣잖소.”

스랄은 다나스의 시선을 한참 응시하다 고개를 고덕었다. 그가 제이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최선의 방도일 것 같긴 하오. 공격 부대를 모으고, 동시에 대대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을 테니.”

제이나는 숙고에 잠겼다. 아라시 고원의 상황은 순화해서 표현하더라도 꼭 찌르면 터질 듯했지만, 그래도 다나스의 주장엔 일리가 있었다.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라시 고원에는 제대로 된 표적을 찍어 주면 달려 나갈 병력이 하나도 아닌 두 개나 주둔하고 있었다.

제이나가 지팡이에 손을 뻗었다. “그렇게 하죠. 함대를 스트롬가드로

쿠르드란이 작게 욱설을
내뱉었다. “이 해묵은
갈등은 진즉 해소된 줄
알았건만.” 그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수염을
쓸어내렸다. “고원의
상황은 좋지 않소. 전혀
좋지 않지.”

보내겠습니다. 함대가 도착할 때쯤이면 공격 부대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스랄, 망치 주둔지로 가서 게야라와 협상해 주세요. 코르크론을 포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그라가 말했다. 아그라가 스랄 곁으로 다가왔다. “게야라는 제게 자매나 다름없어요.” 그녀가 배우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분명 얘기를 들어줄 겁니다.”

“동의합니다.” 제이나가 말했다. “전 다나스와 함께 스트롬가드로 향하겠습니다.”

“미안하오, 제독.” 다나스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스통윈드를 비운 지 너무 오래됐소. 투랄리온이 조속히 왕궁으로 복귀하라고 전언을 보냈다고. 그렇지만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리다. 마란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경청할 것이오.” 다나스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제이나가 회의장에 모인 이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번 회담에 용기 있고 허심탄회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 물러나자, 제이나는 스랄과 아그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비하세요.” 그녀가 차원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바로 출발할 거예요.”



제이나와 스랄, 아그라는 보랄러스에서 아라시 고원으로 통하는 차원문을 통과한 순간, 상황이 급변했음을 직감했다. 셋이 도착한 지점은 사방이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시야가 차단된 곳이었다. 상황 파악이 끝나기 무섭게 아그라는 옥설을 읊조리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아그라는 엮어진 시신 곁으로 가 몸을 숙였고, 제이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신은 한 구만 있지 않았다.

스랄이 한 인간의 시신을 넘어서 지나갔다. 도끼에 맞아 갑옷이 찢겨져 있었다.

“맙소사.” 제이나가 중얼거렸다. 숫자를 세어 보니 시신은 총 12구가 있었다. 7군단의 방어를 입은 인간의 시신 6구, 코르크론의 모피와 가죽 방어를 입은 오크의 시신 6구. 제이나는 근심 어린 시선으로 주변 언덕을 둘러보며 스랄과 아그라에게 합류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그라는 바로 옆 코르크론에게서 피로 점철이 된 7군단 제식 검을 뽑아 들었다. “혈전.” 그녀는 일어서서 검으로 여러 오크의 시신을 가리켰다. 갑옷의

“있어선 안 될 일이죠.”

아그라가 말했다.

그녀가 검을 내려놓고 동료들에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 곧장 망치 주둔지로 가서 계야라를 말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스트롬가드로 출발하세요.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게 이 사태를 가장 빠르게 진정시킬 방법이에요.”

급소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 “인간 측에서 습격을 감행했군.....”

스랄이 곧 배우자의 생각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코르크론이 강력한 적수란 걸 깨달은 거겠지.” 그는 핏빛으로 물든 현장을 내려다보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공멸한 것 같소. 수적으로나, 무력으로나 동등한 두 소규모 부대가 충돌했고..... 어리석게도 적의 전력에 당황한 거겠지.” 스랄이 제이나를 쳐다보았다. “이미 너무 늦은 걸지도 모르겠소.”

“있어선 안 될 일이죠.” 아그라가 말했다. 그녀가 검을 내려놓고 동료들에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 곧장 망치 주든지로 가서 게야라를 말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스트롬가드로 출발하세요.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게 이 사태를 가장 빠르게 진정시킬 방법이예요.”

스랄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겠소, 내 사랑.” 부부가 손을 맞잡았다. 이내 아그라는 별다른 말 없이 북쪽 언덕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언덕을 올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스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제이나를 바라보았다. “스트롬가드로 출발합시다.”

하지만 둘이 개활지로 나오기 무섭게, 카랑카랑한 휘익 소리가 제이나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스랄은 서 있던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어깨와 가슴보호구 사이에 깃털 달린 화살이 꽂혀 있었다.

제이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스랄과 궁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어 보호막을 펼쳤다. 또 한 번 새된 파공음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보호막을 빗겨 나갔다. 바로 그 순간 제이나는 목표를 포착해 냈다. 맞은편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한 나무 옆에서 일순간 움직임이 보였다. 활을 들고 망토를 두른 인물이 엄폐를 나와 도망쳤다. 등에 걸린 화살통이 덜렁거렸다.

제이나가 주먹을 움켜쥐고 앞으로 내전자, 파지직거리는 보랏빛 마력의 구체가 언덕으로 날아갔다. 잠시 후 노란색 불꽃과 분홍색 빛을 내뿜으며 나무가 폭발했지만, 궁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제이나가 욕설을 내지르며 스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냥 두시오. 괜찮을 거요.” 스랄이 손짓하며 말렸다. 그는 툭 튀어나온 화살을 붙잡고는 한 번에 잡아당겨서 빼냈다. 스랄이 화살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제이나가 화살촉을 응시했다. 거뭇거뭇한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확실히 보였다. 반들거리는 밝은 푸른색의 물질이. 제이나가 질겁하며 눈을 크게 떴다.

“독? 스랄, 당신.....”

스랄은 화살을 한쪽으로 내던진 다음 다친 어깨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그가 인상을 구겼다. 여전히 환부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다. “괜찮을 거요.” 스랄이 잠시 침묵했다. “아무튼 빨리 스트롬가드에 가봐야 할 것 같소.” 그가 언덕을 향해 손짓했다. “앞장서시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및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및 *Big Finish*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 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